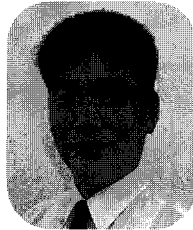


6월 지육시세는 3,00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돼지콜레라도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5월 첫 주차에는 노동절과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도축일수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돼지 공급 또한 크게 감소하여 공급물량의 감소에 따라 도매시장의 지육단가는 300원 정도 상승하여 2,750원대를 기록하여 당초 예상한 2,800원대에 접근하고 있다.

이제야 돼지가격이 회복되려나 보다.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8~9개월 동안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전국의 많은 양돈농가들이 아주 큰 어려움 속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괄 사육 하던 농장 중에서 모돈 50~100두 규모의 농장이 번식돈 사육을 포기하고 비육돈 사육농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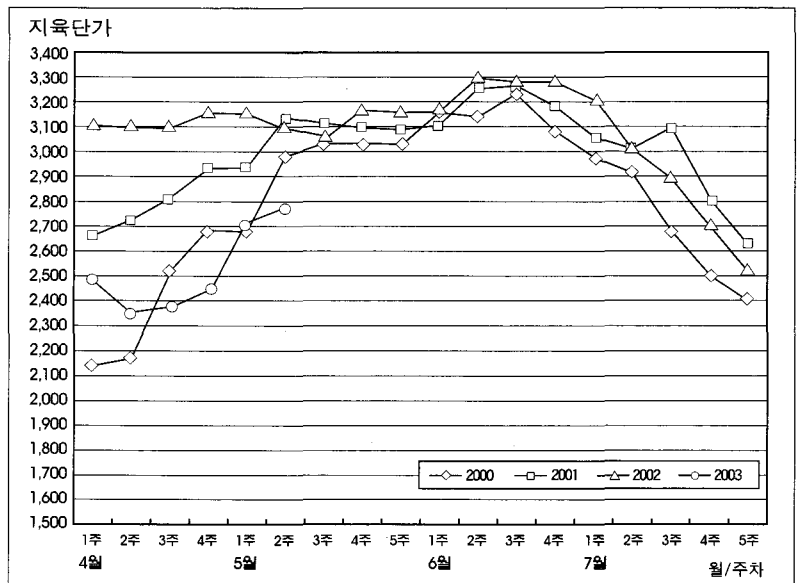
장기간의 돈가 하락이 양

돈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돼지가격이 가장 높은 달은 매년 6월인 경우가 많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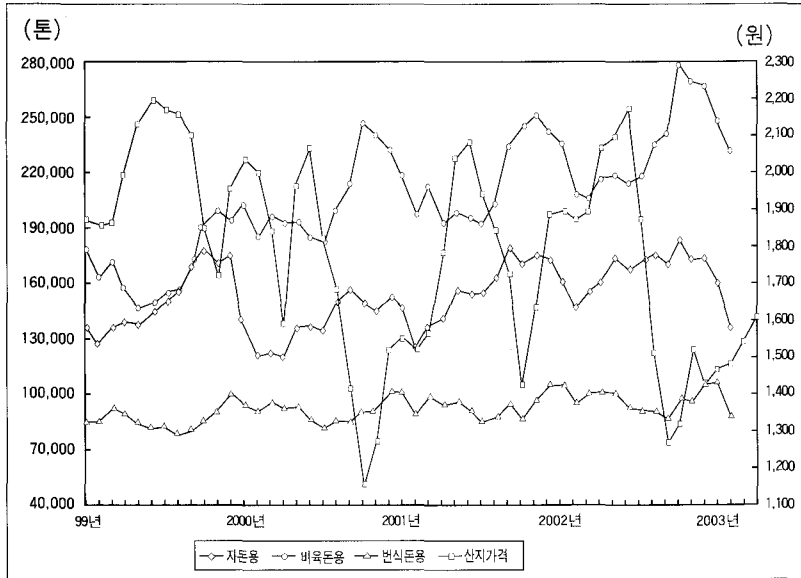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돈가 동향을 보면 6월이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6월은 역시 돼지가격이 최고 높은 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6월의 돈가가 높은 이유는 출하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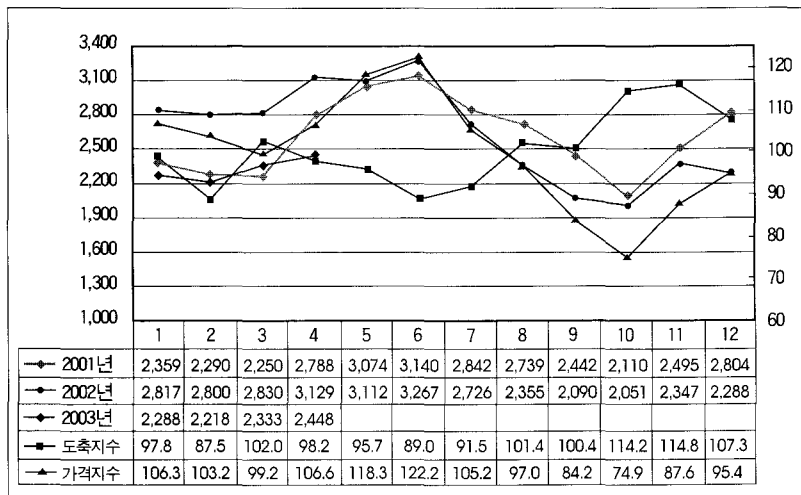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전국 주요 1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6월의 출하두수는 전년 8월 교배한 임신돈이 12월과 1월에 분만하여 금년 5월말부터 6월에 걸쳐서 출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매년 5월부터 출하두수가 부족해지고 전년에 이월된 재고돈육이 소진되어가는 6월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육단가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그림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

별 지육단가 동향을 살펴 보면 역시 6월의 지육단가가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의 최근 4개년간 사료생산량의 변화에서처럼 자돈 사료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돈 사료생산량은 3~4개월 후의 비육돈 출하물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금년 5월과 6월의 비육돈 출하물량이 감소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냉장육의 원료돈이 출하두수 감소에 따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전년부터 이월된 재고 물량과 금년도 수입물량이 버티고 있어서 가격상승은 예년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SARS(사스)의 영향으로 대형음식점의 매출감소와 여행감소, 북한 핵문제에 따른 소비위축 등과 같은 소비시장의 위축요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돼지가격의 상승은 예년과 같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 6월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가격은 3,0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